

이슈 브리핑

◎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배터리 재활용) Stellantis, Orano와 배터리 재활용 JV 설립 추진
- (충전 인프라) 전기차 판매 급증에도 저조한 수익에 시름 앓는 中 충전소
- (충전 인프라) 전기차 충전소 구축 경쟁에 뛰어들어 美 호텔업계

◎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반도체) 中 SMEC, Xpeng·CATL 등과 차량용 SiC 반도체 합작사 설립
- (SDV) EV 컨소시엄 MIH, 印 M Mobility와 차량용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
- (자율주행) 日 NEDO-KCCS, 라스트마일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실증 실험

◎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Denso) 반도체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발표
- (Continental) AI 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R&D 투자
- (Valeo-Renault) 작아진 차세대 전기모터 공동 개발

◆ (배터리 재활용) Stellantis, Orano와 배터리 재활용 JV 설립 추진

- Stellantis는 Orano*와 유럽 및 북미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와 기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스크랩의 재활용을 위한 합작법인(JV)의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(MoU) 체결

* 프랑스 정부가 89.99%의 지분('22년 기준)을 보유한 원전 기업으로,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·재활용과 우라늄 채굴, 원자로 해체 기술 컨설팅이 주 분야이나 최근 리튬 배터리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추진 중

- 당사는 Orano의 저탄소 기술과 Stellantis의 기존 설비 등을 활용해 '26년 상반기부터 블랙 매스를 생산할 계획으로, 이후 佛 뵐케르크에 들어설 Orano의 습식제련 플랜트에서 이를 정제할 전망

※ Stellantis('23.10.24) <https://www.stellantis.com/en/news/press-releases/2023/october/stellantis-and-orano-enter-electric-vehicle-battery-recycling-agreement>

◆ (충전 인프라) 전기차 판매 급증에도 저조한 수익에 시름 앓는 中 충전소

- SCMP에 따르면 中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들은 현지의 전기차 판매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충전소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저조한 가동률과 수익성에 고전하고 있음

* 관련 기관 EVCIPA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공용 충전기의 70%가 베이징·상하이 등의 발전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도심지역은 과도한 공급, 농촌은 수요 부족으로 시설별 가동률이 저조

- 中 정부가 '30년 충전기당 전기차 비율 1:1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, 전기차 생태계를 지탱할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해선 지역 간 불균형 및 수익성 문제 해결이 요구될 전망

* Rystad Energy에 따르면 업계 2위인 Starcharge의 경우 충전기당 일일 가동률이 8%에 그쳐 일일 수익이 \$10가량일 것으로 추정(kWh당 \$0.2~0.25 기준)

※ South China Morning Post('23.10.28.) <https://www.scmp.com/business/article/3239399/chinas-ev-charging-problem-can-providers-deliver-power-where-cars-need-it-across-vast-nation-and>

◆ (충전 인프라) 전기차 충전소 구축 경쟁에 뛰어든 美 호텔업계

- 최근 美 호텔업계의 新 키워드는 전기차 충전으로, 특급호텔 Hilton의 웹사이트에서 'EV 충전'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기업들이 충전소 구축에 나서고 있음

* JD Power 또한 호텔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비율이 19%로 나타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호텔 선택에 있어 전기차 충전소 여부가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

- 호텔 등급별 충전소 구축 현황*이 크게 상이한 가운데 Marriott는 EV Connect, Hilton은 Tesla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등 기업별로도 차별화된 전략 추진

* '22년도 미국호텔협회(AHLA)의 관련 리포트에 의하면 美 호텔 중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곳은 26.6%로, Full Service (부대 시설 다수) 호텔은 58.1%, Limited Service(일부 서비스 제공) 호텔은 20.4%가 충전소를 보유해 상당한 격차 존재

※ Energy Wire('23.10.26.) <https://www.eenews.net/articles/the-new-wi-fi-hotels-go-big-on-ev-charging/>

◆ (반도체) 中 SMEC, Xpeng·CATL 등과 차량용 SiC 반도체 합작사 설립

-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의 자회사 SMEC*는 Xpeng, Luxshare**, CATL와 합작 투자를 통해 차량용 SiC 반도체 기업 Xinlian Power Technology 설립

* SMIC로부터 기업 분할된 SMEC는 MEMS(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), MOSFET(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), IGBT(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)등의 공정 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 기업

** 가전제품, 자동차 등의 케이블 등 부품 설계·제조 업체로, iPhone15, AirPods 생산 중임

*** 합작사 Xinlian의 등록 자본금은 923.1억 원이며, SMEC는 그 중 470.8억 원 투자

- SMEC는 파트너십이 자동차용 SiC MOSFET를 대량생산하여 신에너지차(NEV),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의 자국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

※ Digitimes Asia('23.10.27.) <https://www.digitimes.com/news/a20231026PD224/smic-smec-sic-automotive-ic-joint-venture-catl-xpeng-motors.html>
YiCai('23.10.25.) <https://www.yicaiglobal.com/news/chinas-smec-to-set-up-usd684-million-automotive-grade-sic-jv>

◆ (SDV) EV 컨소시움 MIH, 印 M Mobility와 차량용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

- MIH*는 Japan Mobility Show 2023에서 Project X, Y**를 공개하고, EV 솔루션 업체인 M Mobility와 소형 전기차 Project X의 플랫폼 기술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발표

* Foxconn이 주도하는 EV 컨소시움으로, MS, CATL, LG Energy Solution 등도 참여 중

** Project X 컨셉카: 로보택시/배달 차량으로 자율주행 레벨 2~4 조정 가능, 교체 충전 방식 배터리(Gogoro 제품), 2 또는 3인용 조정 가능 좌석, Project Y: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 EV 트럭·밴, 탄소 추적 플랫폼 등을 개발 중

- Nikkei에 따르면 M Mobility는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 Tech Mahindra가 컨소시움을 위해 신설한 기업으로, Project X 플랫폼 기반 차량을 생산하여, '25년부터 연간 10만대를 인도(50%), 태국(2~30%), 일본(20%)에서 판매 예정

* 日 Sumitomo의 자회사인 통근용 EV 서비스 업체 Hakobune는 M Mobility와 협력관계로, Project X를 채택할 것으로 보임

※ MIH('23.10.30.) <https://www.mih-ev.org/en/news/2555>

Nikkei('23.10.26.) <https://asia.nikkei.com/Business/Automobiles/Foxconn-led-MIH-sets-EV-sales-targets-for-India-Thailand-and-Japan>

◆ (자율주행) 日 NEDO-KCCS, 라스트마일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실증 실험

- 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(NEDO)와 ITC 및 통신 기업 Kyocera Communication System(KCCS)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중속·중형 자율주행로봇* 동시에 여러대를 공공도로에서 원격 운전자 한 명이 조작·감시하는 실증 실험 완료('23.10.25~29)

* 전장 2500×전폭 1300×전고 2000mm의 미니카이며, 최고속도 15km/h

※ Nikkei('23.10.27.) <https://xtech.nikkei.com/atcl/nxt/news/18/16177/?P=2>

◆ (Denso) 반도체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발표

- Denso의 하야시 신노스케 사장은 Japan Mobility Show 2023에서 '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약 5,000억 엔을 투자하여 '35년까지 현재 사업 규모를 3배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
- '22~'25년까지 전동화·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,000명 증원과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*을 통해,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자 플랫폼(Electronics Platform)** 및 OTA 기술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

* Denso는 반도체 지적재산권 전문기업 Nsitex와 차량용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Aubass를 M&A 추진 계획

** 전자 부품 및 전자제어장치(ECU)와 같은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플랫폼

※ Denso('23.10.26.) <https://www.denso.com/global/en/news/newsroom/2023/20231026-g01/>

◆ (Continental) AI 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R&D 투자

- 동사는 헝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및 차량 안전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AI 분야 3가지 이상의 R&D 프로젝트에 4,760만 유로 투자 계획을 밝힘

* Continental은 '18년 부다페스트에 AI개발 센터 개설 이후, 컴퓨터 비전, 환경 인식 등 지속적인 AI 전문성을 키워왔음

- (Continental Automotive Hungary) 부다페스트와 베스프렘 공장에서 ① Level 4의 고도 자동화 주행(Highly Automated Driving)을 포함한 자율주행 시스템 ② 차량 안전 보장 및 산업 표준 개발 예정
- (Continental Autonomous Mobility) ③ Level 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 예정

※ HIPA('23.10.26.) <https://hipa.hu/news/continental-to-launch-massive-r-and-d-investments-to-stay-ahead-in-the-ai-race/>

◆ (Valeo-Renault) 작아진 차세대 전기모터 공동 개발

- 양사는 '21년 체결된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전기모터 E7A를 공동 개발하여 '27년 말 Renault Group의 클레옹(Cléon) 공장에서 양산 계획

* 전기모터는 Valeo의 고정자(Stator)와 Renault의 로터(Rotor) 기술을 결합

- E7A 모터는 일체형 아키텍처로 자사 동급 출력 모터 대비 30% 작고,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로터 기술로 탄소배출을 30%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, 최대출력은 200kW라고 밝힘

※ Renault('23.10.26.) <https://www.renaultgroup.com/en/news-on-air/news/e7a-the-next-gen-electric-motor-developed-by-renault-and-valeo/>